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김태흠 지사, 안정 대책 발표

피해액 절반 ‘즉시 선 지급’ 방침

정부지원과 별개로 지원책 마련
영농재개·주거안정·일상복귀 총력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손길 잇따라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지사는 7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구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과 3600만원, 반과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이에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수해복구 '구슬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충남은 부여 외산 833mm 등 1000년 빈도의 이례적 천재지변(폭우)이 발생했다. 사진은 자원봉사자들이 논산지역 내 육묘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복구활동을 펴고 있는 모습. 사진/논산시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ha,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구적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도는 ▲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7월 20일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논산시와 부여·청양군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소방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2000명, 차량 32대, 수방장비 188점을 투입했다.

이들은 침수된 주택 배수와 생활용품 세척, 농경지 배수 장애요소 제거 등 수해복구활동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부터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도 농림축산국 직원 90여명은 부여를 찾아 수박·오이 등 피해 농작물을 제거하고, 시설하우스 및 퇴수로 정비 등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복구 지원은 피해 농작물을 빨리 제거하고 새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신속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국에 이어 다른 실·국에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 인재개발원은 7월 21일 공주 지역을 찾아 퇴적물 정비, 폐기물 수거, 침수 주택·시설 정리 등 수해 복구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도 인재개발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등 90명이 참여했다.

〈관련 9면〉

/정책기획관 041-635-3101
/스마트농업과 041-635-2520

수해복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 모금기간 : 2023년 8월 31일까지
- 모금계좌 : 국민은행 054990-72-003752/
농협은행 106906-64-003747
-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 1544-9595

◆ 현물(세탁기, 냉장고, 도배장판 등) 지원

시군별 현물지원 접수처

- 공주시 -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정책팀 041-840-8221
- 논산시 - 세무과 세정팀 041-746-5432
- 부여군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830-2061
- 청양군 - 행정지원과 교류새마을팀 041-940-2771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	3면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건립	4면
다문화가족 충남정착기	6면
호우피해 복구활동	9면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대산 그린컴플렉스 산단 들어선다

2027년까지 226만㎡ 규모 조성
석유화학 확장 경제발전 기대

충남도는 서산시 대산을 대죽리 일원에 조성하는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산 그린컴플렉스는 2027년까지 7120억원을 투입해 총 226만㎡(약 68만평) 부지에 산업시설용지만 142만㎡(43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에는 현대오일뱅크, 엘지(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케이씨씨(KCC), 한국석유공사 및 60여 중소기업이 입주한

상태로, 그동안 40여 개 기업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면서 추가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진행, 승인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이번에 승인고시하게 됐다.

도는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확장 수요 대응과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의 산업경쟁력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조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7000억원, 부가가치액 1조 4000억원이 발생할 것

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연결한 국도 38호선(독곶-대로)이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으로 2031년 준공 예정이다.

향후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9년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경선 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산시민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지원과 041-635-3444

해역 방사능 측정 결과 주 1회 공개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불안감 해소

충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해역 방사능 측정 결과를 월 1회에서 주 1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 전국 최초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안 해양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협약을 맺고, 어업지도선인 충남해양호에 해수 방사능 측정기기를 탑재한 바 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충남해양호 운항 시(도내 연안 전역) 분 단위 검사자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실시간 송출, 과학적 분석·검증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도 누리집에 월 1회 신호 등 형식으로 공개해 왔다.

최근까지 도내 해역에서 인공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측정 결과를 주 1회 공개키로 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조사 결과는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수 방사능 안전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9

아산에 충남권역 재활병원 설립

운동·로봇 치료실 150병상 규모

충남도는 7월 20일 아산시청에서 ‘충남권역 재활병원 착공 최종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진행 상황과 부지 준비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으며, 기관별 협조 요청 관련 조치 상황을 살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아산시 용화동 산 45-1 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

운동 치료실, 작업 치료실, 로봇 치

료실, 언어치료실, 각종 검사실 등을 갖추고 뇌졸중, 뇌 손상 재활, 척수 손상 재활, 근골격계 재활, 소아 재활, 스포츠 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8월 중 착공한다.

곽행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8

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선제 대응 협력

도내 시군 1곳 이상 선정 목표
수영장, 도서관 교육·돌봄 시설
“방과후 참여 높여 사교육비 경감”

충남도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과 힘을 합친다.

도는 7월 19일 도교육청과 학교복합시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하고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등에 협력한다.

도와 교육청은 5년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총 15개 공모 선정을 목표

로 우선 공모 선정에 힘을 모으고, 향후 설치·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포함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구축실 등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 부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23조 4000억 원 보다 10.8% 증가한 26조 원, 참여율 역시 78.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150개의 늘봄학

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 기존 설치 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최소 하나 이상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시설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시설은 물론 수영장, 콘서트홀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센터, 저학년 학생을 위한 아동친화시설도 설치될 예정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사업 범위별 학교복합 시설 유형을 마련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소멸에도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2

군소음 피해 지역 실태조사

도내 군용비행장 4곳 등

충남도가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7월 20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 주재로 ‘군소음 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도 관계자 및 군소음 피해 5개 시군(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전문가, 주민대표, 용역 수행기관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제정·시행된 ‘충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

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 지원방안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는 도내 군용비행장 4곳, 군사격장 주변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과업내용은 ▲대상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주민피해 실태조사 ▲소음·진동 실태조사 ▲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안) 도출 등이며, 내년 9월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도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및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2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 걸음!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충청남도·15개 시군

해당 사업은

충남도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8. 1.(화) ▶ 8. 31.(목)
지원자격	아래 세 가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충남도민(부모 또는 학생)2 기준중위소득 50%~70%3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도내 예체능·직업기술 학원 및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 지원신청서 방문 제출 (QR참고) → 지원자격 검증 → 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 2027년까지 3258억 투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천안·아산 산업단지 10개 연계
“충남 디스플레이 초격차 선도
세계적 디스플레이산업 메카로”

충남 천안·아산 10개 산업단지 지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7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이 마침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첨단전략기술 경쟁력 확보 및 양산체계 공격적 투자로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디스플레이산업 시장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 10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투자로 세계 액정표시장치 시장 1위로 도약한 상태다.

중국은 액정표시장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중 양자간 경쟁구도이나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디스플레이 공급망 독점 시 무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확보 등 세계적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충남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3258억 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단지 10개를 연계해 구축되며, 사업 대상 부지는 1412만㎡(약 428만평)로 축구장 1988개가 넘는 규모다.

도는 신규 7개 사업(1253억원)과 기존·연계 10개 사업(2005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현황

- ▲지정면적 - 10개 단지(천안 4, 아산 6)
- ▲추진사업 - 17개 사업(신규 7개, 기존 연계사업 10개), 3258억 원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5년)
- ▲조성방향 - 디스플레이 산업안보 및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향후계획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운영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천안), 소부장 테스트베드(아산)와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효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반 제공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은 세계적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요충지로서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

가 아산에, 전후방산업 중소기업 757개가 천안·아산 등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267억 달러(51.3%)를 생산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테스트베드와 연계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자동차 및 반도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신산업 발굴에도 노력한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

8.6세대 정보통신기술(IT)용 발광다이오드(OLE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최대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유 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를 발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신산업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협력-인력교류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3

탄소중립에 그치지 않고 미래 경제를 선도합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란?

탄소중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에너지, 경제산업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

- 新 성장동력
- 미래먹거리
- 새로운 일자리

보령 원산도에 해양레저센터 건립

해수부 주관 공모 최종 선정
2026년까지 400억 투입하고
파도풀·서핑 등 수상레저공간

충남도는 보령시 원산도 해수욕장 일원에 2026년까지 ‘원산도 해양레저센터’를 건립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국가 공모’에 보령시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억)을 확보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사계절 동력·무동력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안전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엔드리스풀, 파도풀, 일반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감도

풀, 아쿠아클라이밍 등 지상 2층 규모의 해양레저시설(원산도 오션 플레닛)을 갖춘다.
실외에는 피어(부두) 계류시설, 유닛서프폴(인공서핑) 등 해양체험시설(원산도 오션 프린트)과 탐방로 및 오토캠핑장 등 육상체험시설(원산도 오션 트레일)을 조성한다.

도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받는 즉시 보령시에 교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보령시는 원산도 복합마리나항과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사업이 해수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면밀히 준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에 공공사업과 대규모 민간사업을 연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황금빛 노을이 뜨는 노을경제권의 허브, 해양레저와 생태, 치유와 문화예술이 모두가능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7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밀그림’ 그린다

기본구상·사전조사용역 착수
시설 규모, 배치방안 등 검토

충남도가 청양 옛 구봉광산에 건립할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의 구체적인 밀그림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사무실과 교육센터 등의 규모, 전국 최대로 건립하게 될 파크골프장의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는 7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구상 및 사전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 충남도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도

립파크골프장 건립을 본격화했다.
협약은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으로 이전하고, 14만 6125㎡의 부지에 협회 사무실과 교육센터,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축·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 및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 현황,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를 통해 적정 시설 규모 등을 도출하고, 파크골프 시설의 적정 배치 방안을 마련, 조감도와 배치도, 평면도 등을 제시한다.

도는 이번 도립 파크골프장과는 별개로 내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파크골프장은 6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된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장(60만~100만㎡)보다 훨씬 적은 2만㎡ 안팎(18홀 기준)의 경기장에서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 채(86cm·600g) 하나만으로 6c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일반 골프공 4.2cm)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경기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진행하며, 최종 코스까지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경기를 이기게 된다.
/체육진흥과 041-635-3866

“전동킥보드 실내충전 피해야”

충남소방본부는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 대부분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만큼 실내 보다는 실외에서 충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 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가급적 실외에서 충전을 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4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수칙

- ❑ 배터리 충전시간을 확인해 장시간 충전하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타는 냄새나, 만졌을 때 뜨거워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충전하는 것이 좋으며 충전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한다.
- ❑ 비상 상황을 대비해 대피가 어려운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한다.
- ❑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는 과충전 방지를 위하여 코드를 꼭 뽑아 놓는다.
- ❑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장소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잔량을 80% 정도 유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잔량 체크를 한다.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도정게시판

농업인 안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월 18일 농작업 재해 위험을 줄이고 농업인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 365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업인 안전 365 릴레이 캠페인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농작업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전북농업기술원과 예산군농업기술센터를 지목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91



휴가철 여권 발급 서둘러야

충남도는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미리 여권을 준비할 것을 안내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구여권 등을 준비해 도청

민원실이나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가로 3.5cm, 세로 4.5cm여야 한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3.2~3.6cm여야 하고, 사진 배경은 흰색이어야 한다.
도에서는 여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열어두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 여권 민원 창구를 열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여권 신청 등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여권 관련 민원을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고 즉시 답변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여권 민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이 늘어남 만큼 여행 전 미리미리 여권 발급을 신청해달라”고 했다.
/자치행정과 041-635-2354

소상공인 SNS 마케팅 교육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보)은 도내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8월 교육과정을 개설·시행한다.
창업아카데미와 역량강화 과정은 소



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당근마켓 및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SNS 플랫폼 마케팅실습 과정은 8월 17일~18일 부여시장 상인회교육장에서, 8월 21일~22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8월 교육과정은 충남신보 홈페이지(www.cnsinbo.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88

귀어학교 8월 11일까지 모집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8월 11일까지 올해 마지막 기수인 귀어학교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기초 수산업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을 통해 어촌 이해도 향상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화합 여건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격은 귀어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어민 및 예비귀어인이며 총 25명을 선발한다.
교육은 총 4주간 함축으로 진행되며, 수산 기초 이론 학습과 어촌살이캠프 현장 실습을 각각 2주씩 진행한다.
수산 기초 이론은 충남귀어학교에서 받게 되며, 어촌살이캠프는 어선 어업과 맨손 및 양식어업 등으로 나누어져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청년 귀어인 모집을 위해 40대 이하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내 간담회 개최 및 청년 정착 모니터링 등을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이나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http://www.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7

충남인재양성 허브대학 ‘발돋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는 7월 18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3년 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혁신계획 및 사업 운영방향 발표, 자율혁신계획 공유(의견수렴)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양노열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명하고, 향후 수정·보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 방향은 ▲학생 성장중심 교육지원체계 강화 ▲지역산업 수요기반 실무중심 교육체계 수립 ▲충남 대표 지역사회 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 ▲대학 운영 체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 충남형 취업·교육·산학협력 혁신체계를 공표 및 적용하고, 충남산업 기반 전공과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형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축제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도립대 041-635-6683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 연결

야생동물 이동 생태축복원 협약 2026년까지 98m 생태통로 설치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이 생태통로로 연결된다.

충남도는 7월 18일 천안시청에서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6년까지 총 393억 원을 투입해 단절 구간에 길이 98m, 폭 30m의 생태통로를 설치한다.

금북정맥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태안군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 산림생태축으로,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이다.

충남의 핵심 생태축으로 생태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지역이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이후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로, 야생동물 유전자 격리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구간은 천안-당진간 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교통 차단 시 국민불편과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도와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은 올해 초부터 공사공법 변경 등 논의한 결과 경부고속국도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안을 도출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천안 목천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수덕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 국토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들 기관은 생태통로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과 이동을 도와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목천 금북정맥은 도의 단절된 생태축 중 복원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정책과 041-635-4416



모종 심기 등 텃밭 체험 인기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치유정원 양성과정 일환으로 ‘나는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탐색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 소통, 성취감을 느껴봄으로써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마을 정원사들이 싹을 틔워 놓은 모종을 어린이들이 텃밭에 심어보고,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을 탐색·수확하는 등 활동이 진행됐다. 인성학습원은 다양한 대상들이 정원을 가꾸고 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치유 받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041-631-8931

1만원으로 ‘강남인강’ 수강

충남 중·고교생 1년간 무제한

충남도 내 거주하는 중·고교생들은 다음달부터 1만원만 내면 서울 강남구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을 1년간 무제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방-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구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이용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인강은 학력보완교육 등 각종 공교육 보완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1360개의 강의를 연 5만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강남구청 직영 교육플랫폼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누리집(www.cil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휴대폰으로 수강권 코드를 받고, 강남인강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3

생명사랑 로고송 공모전

8월 7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충남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월 7일까지 생명사랑 로고송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등 세 가지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모 주제가 포

함된 30~60초 분량의 가사가 있는 음원을 파일(MP3 또는 WAV)로 제작해 충청남도광역자살예방센터 전자우편(chspc2019@naver.com)으로 발송하면 된다.

입상작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적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10.)’ 기념 생명사랑 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하는 등 도민의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나만의 캐릭터 굿즈 제작하세요

아트토이·굿즈 제작 교육생 모집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창수)은 도내 창작인력 양성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캐릭터를 활용한 3D 아트토이 클라우드 펀딩과정과 굿즈 제작 과정을 운영한다.

캐릭터 굿즈제작 과정은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해 아크릴 키링, 부즈스틱 등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2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3D 아트토이 클라우드 펀딩과정은

직접 제작한 3D아트토이로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정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도내 캐릭터를 이용한 창작물 제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ZMxhcC) 또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04

충남도청 레슬링팀 정의현 금메달

스페인그랑프리 대회 125kg급

충남도는 도청 레슬링팀 정의현(36·사진) 선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3 스페인그랑프리 대회’에서 자유형 125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 선수와 캐나다선수를 연달아 꺾고 준결승에 진출 한 정의현



선수는 스페인선수 아세브론을 4대 1로, 결승에서는 콜롬비아선수 오도루우스 프프를 5대 1로 제압

했다. 정 선수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훈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상상력으로 백제 유적 보기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20)부여왕릉원(부여 능산리 고분군)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능사를 창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이곳에 능사를 창건했을까요? 우리 백제 역사 탐험대가 이유를 찾아봅시다. 자아, 말씀해 보세요. 저기, 여학생! 부여왕릉원에 성왕의 무덤이 있으니 이곳에 능사를 창건했다고요? 아쉽게도 부여왕릉원은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도굴당하여 무령왕릉의 지석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마 여학생의 말처럼 부여왕릉원에 성왕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우리 부여왕릉원으로 가볼까요. 부여왕릉원은 모두 7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래 전부터 왕릉으로 알려져 왔던 이 고분들은 일제강점기에 1~6호 무덤까지 조사되

어 내부구조가 자세히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장 뒤쪽에 혼자 위치하고 있던 7호 무덤은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여왕릉원의 고분들은 흙으로 쌓아올린 원형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돌을 가공하여 한쪽 벽면으로 출입이 가능한 방을 만든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이에요. 모두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쪽 아래무덤을 1호 무덤(東下塚; 동하총)이라고 부르는데,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어요. 현재 1호분은 벽화의 보존을 위해 밀폐되었지만, 벽화고분 모형을 통해 1호분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니 구경해볼까요. 어때요. 사신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말하

는데요. 보세요. 방위에 맞춰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사진이, 천장에는 우주를 상징하는 연꽃과 구름무늬이 그려져 있죠. 지금의 우리는 백제인의 우주관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벽화 그림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부여왕릉원에서도 백제의 뛰어난 예술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왕릉원, 능산리사지, 부여나성을 테마로 만들어진 작은 전시관인 부여왕릉원 아트뮤지엄도 있어요. 디지털영상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전시관이랍니다. 이곳에서 돌방무덤이 쌓아지는 과정과 완성된 돌방무덤을 360°로 돌아가며 감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 갤러리를 이용하시면, 돌방무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재미있으셨나요. 조금 아쉽다고요. 아, 유럽처럼 왕궁이나 성당 같은 건물이 없어, 볼거리가 없다고요? 사실 백제 유적은 왕궁도 사찰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부여왕릉원 전경.

요. 그렇지만 백제 유적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백제 유적을 볼까요? 저 허허벌판이 13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능사터에는 위엄 있는 왕실 사찰이, 그 옆엔 도굴되지 않은 왕릉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제인들이 있었겠죠. 사찰에서 기도하는 사람, 사찰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

왕릉을 지키는 관리, 성왕의 제사 일에는 위덕왕의 행차가 있을 테고,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아, 상상을 통해 1300년 전 부여왕릉원과 능산리사지를 마주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백제유적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금산삼계탕축제 바가지요금 없었더니 맛·매출 쑥↑

착한가격에 관광객 호평 일색
음식 가격통일하고 품질 점검

서해안 해수욕장도 특단대책
부당요금 신고센터 등 운영

여름 성수기를 맞이한 충남 축제와 해수욕장이 착한가격 확산을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실천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7월 9일 막을 내린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는 1만 3000원으로 삼계탕 가격을 통일하고 음식의 질은 한층 높여 여름철 국내 대표 축제로 성장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금산삼계탕축제 바가지 예방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착한 가격’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에 개최된 금산삼계탕축제에는 5만 9000여명이 방문했으며 닭 2만여 마리와 인삼 1만 5000kg이 모두 소진됐다.

금산삼계탕축제에서는 고질적인 바가지요금과 음식의 품질 저하를 키오스크(무인 판매 시스템)와 사전 품평회로 해결했다.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축제장에서 선보일 10개 읍면과 단체의 삼계탕에 대한 전문가 품평회를 사전에 열고 축제

기간에 판매할 삼계탕의 품질과 맛, 가격 등을 점검했다.

또 여름철 닭의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하림측과 협약을 맺었다. 인삼은 온전한 1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였다.

모듬인삼야채튀김, 해물인삼파전, 인삼도토리묵, 인삼제육볶음 등 부메뉴도 전부 1만 원으로 통일했다. 인삼막걸리와 소주, 맥주는 모두 3000원, 음료수는 1000원에 판매했다.

한편, 충남 서해안 32개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개장한 가운데 축제 개최를 앞둔 일부 지자체들도 물가 특별관리팀을 꾸리는 등 상술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월 21일부터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한 보령시는 바가지 요금 관리·감독을 위해 물가 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인들에겐 생선회 등 수산물 가격을 비수수기 때와 비슷하게 맞춰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태안군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물가 동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 태안군 소비자보호센터, 상인회 등과 힘을 합쳐 해수욕장과 전통시장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장중심 물가 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		
금산읍	삼삼한 삼계탕	13,000원
	모듬인삼야채튀김	10,000원
	해물인삼파전	10,000원
금성면	별 다섯 삼계탕	13,000원
	닭발무침	10,000원
	해물파전	10,000원
	매일전병	10,000원
제원면	웅천 삼계탕	13,000원
	골뱅이 무침	10,000원
	해물인삼파전	10,000원
부리면	부리부리 삼계탕	13,000원
	두부김치	10,000원
	도토리해물파전	10,000원
	까죽부침개	10,000원
군북면	산골 삼계탕	13,000원
	인삼도토리묵	10,000원
	인삼제육볶음	10,000원
	인삼닭발편육	10,000원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 메뉴판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에서 판매한 음식들



태안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진행 모습

금산 아토피·천식 예방 총력 대응

보습로션 배부·의료비 지원 등

금산군이 지역 내 천식을 예방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의 중점 추진 사업은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 ▲아토피 보습로션 배부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다.

군은 이에 학생들이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알아보고 특징을 구분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인식을 일깨우고자, 금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토피·천식안심학교 18개소 중 희망학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금산중앙초, 금산초, 추부초, 제원초 4개 학교 및 HKIDZ어린이집, 마전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 등 6곳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의 이해, 환경문제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고 생활 속 환경 호르몬노출자가테스트도 진행했다.

특히 아토피 보습로션 배부는 금산지역 아토피 질환자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연 최대 6회 보습로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의 경우 병원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최대 75000원까지 연간 2회 지원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보습 및 피부관리, 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 유지 등과 함께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공

공주 침수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28일까지 긴급수리반 운영
소액부품 무상교체 등 실시

충남 공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수리반 3개조가 28일까지 현장을 찾아 수리와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수리반은 신고 접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침수됐던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세척과 점검, 오일 교환, 소액부품 무상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기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동시켜 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기계 긴급 수리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침수된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신속히 진행해 농작업에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22살 중국 아가씨에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

지구촌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충남정책기

2011년 가을, 22살에 나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한국에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한국 음식이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되면 고민에 빠졌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먹지 못하였고 그나마 육개장과 갈비탕은 중국 음식과 맛에 비슷하여 자주 먹게 되었다. 굶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온 첫해에 체중이 무려 5kg이나 빠졌다.

두 번째 난제는 소통이었다. 같이 온 중국 유학생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밖에 가면 생활 용어 빼고도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니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

다. 다행히 충남 한서대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원생으로 졸업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에게 있어 이번 생애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나의 남편이자 우리 두 자녀의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직업군인을 하다가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나와 같은 학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되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연애만 할 생각이었지 결혼하고 한국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은 결혼 9년 차 나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직도 믿기



삽화/맹주석

지 않고 꿈을 꾸는 것 같다. 첫째는 8살 남자아이고 둘째는 지금 두 달이 조금 지난 여자아이이다.

나는 둘째를 출산하기 전 다문화 및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였고 꾸준히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취직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둘째 아이가 아직 많

이 어리지만 그래도 취업의 희망을 갖고 준비했다.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제는 한국 음식에 적응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먹을까 말까 하는 청국장까지 잘 먹는다. 청국장과 밥을 같이 먹으면 제법 맛있다. 그만큼 나의 몸무게도 점점 올라간다.

세 번째 난제는 아마도 문화 차이인 것 같다.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은 국가 체제와 정책, 교육,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한다.

또 중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종일 공부하지만 한국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 돌봄, 학원으로 돌려야 하는 점도 다르다.

중국과 한국 명절 문화도 서로 다르고 제사 지내는 방식도 다르다.

그리고 같은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최대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한국과 중국이 나오는 경기도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한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답도 없는 싸움은 피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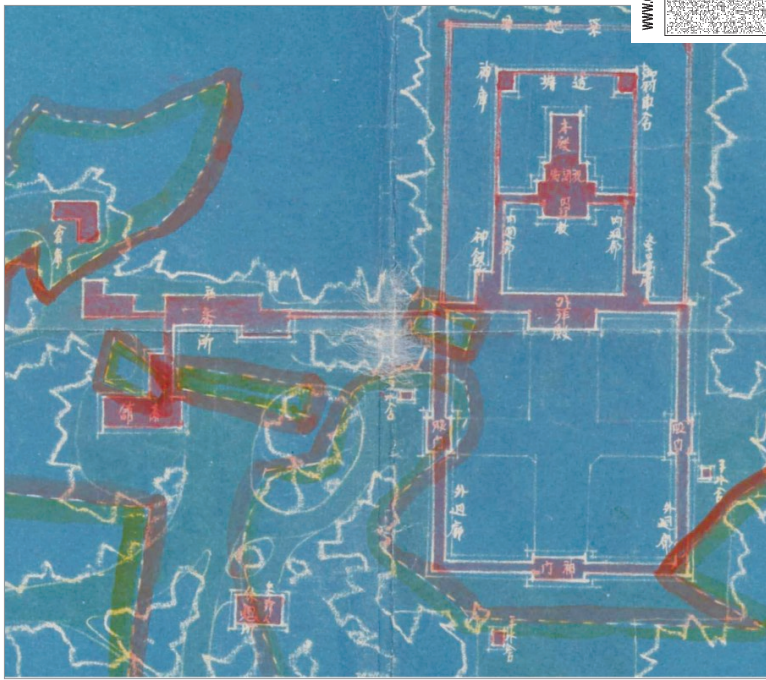
서로의 의견이 달라 큰소리도 날 법하지만 나와 남편은 현명한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문제를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한다.

내 남편과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 나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적응하며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SHI PENGBO(태안군 가족센터)



부소산과 백마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여신사(가칭) 조영계획도. /윤재환 '충청남도 부여군의 부여신궁 고찰', 2020

부여에 일본신궁 추진...황국신민화 신호탄

격동의 충남 100년

제2의 東京이 될뻔한 扶余 1

1937년 4월 미나미 총독 부여 방문
당시 육군대장 복장 아닌 예복 차림

황국신민서사 제정하고 암송 강요
한글 폐지, 창씨개명 등 일본화 작업
부여 부소산성 일대 신궁 창설 본격화

미나미(南次郎) 조선총독이 1937년 4월 충남 부여를 방문한 것은 일제 식민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최악의 암흑시대가 시작 된 것이다. 왜 부여를 방문한 것이 식민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부여를 방문했을 때 그가 즐겨 입는 육군 대장의 복장에 칼을 차지 않고 예복을 입었다는 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백제를 문화적으로 모국처럼 의식하는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 자리잡고있는 부여의 변화에 대한 경외심 때문인지, 그는 숙연한 모습으로 부여 일대를 돌아봤다. (2001년 헤이세이 일왕은 자기의 피 속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고백했음)

수행원들도 정교원 충남지사, 이진원 부여군수, 그리고 총독부 학무국장으로 제한했으며 특별히



홍사준
초대부여 박물관장.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청 박물관 담당 홍사준(洪思俊)씨만 총독 옆에 따라 다니며 현장 설명을 했다. 해방이 되고 한때 부여박물관장을 지낸 홍사준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때의 상황을 필자에 게 모두 털어놓았었다. 미나미 총독은 부소산에서 백마강을 내려다보며 중국 당나라가 백제를 침공했을 때 일본이 구원군 2만명을 파견했으나 백마강전투에서 거의 전멸했음을 회상하며 우리 일본과 조선은 아득한 옛날부터 공동운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계백·성충·흥수 세 백제 충신을 모신 삼충사에 이르러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 했다. 그가 감탄한 것은 ‘바로 여기다!’ 하는 뜻이 내포돼 있었다.

그러니까 부여에 와서 앞으로 지을 일본 신궁(神宮)자리를 찾아다녔는데 이곳 삼충사 자리가 자기가 찾던 명당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나미 총독은 흡족한 얼굴로 부여를 떠나 서울로 갔다. 그러나 떠날 때의 흡족한 얼굴과는 달리 그의 공포통치는 거칠게 전개되었다. 부여 방문에서 영감을 얻은 듯 그해 10월 소위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만들어 각급 학교 학생들은 물론 전국민 모두가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문항을 외우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이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선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대역사(大役事)를 부여에서 시작하면서 조선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이와 같은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하고 1938년 8월에는 한글을 완전 폐지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조선어 시간이 없어졌고 ‘일본어’가 국어 시간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 하여 조상 대대로 이어 온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본화 작업의 정신적 본거지로 부여를 택한 것이며 미나미 총독의 부여 방문은 그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가 육군 대장의 복장을 하지 않고 예복 차림으로 부여를 찾은 것도 자기 위엄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교의식의 발로였던 것. 사실 미나미 총독은 부임하기 전 일본에서 이와 같은 밀명을 받았다. 그가 히로히토 일왕을 예방하고 조선총독 부임인사를 하러 갔을 때 부여에 신궁을 세우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고 일왕을 보좌하는 궁내성으로부터 자세한 지침을 하달받았다. 이때, 미나미 총독은 “서울 남산에도 ‘조선신궁’이 있지 않은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궁내성 대신은 “물론 남산에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여에 세우려는 신궁은 격이 다르다. 관폐대사(官弊大社) 즉, 신궁중에 왕실에서 직접 유지비를 지급하는 최고의 격으로 동경에 있는 신궁과 같은 격이다. 따라서 부여에 세워질 신궁에서 제례가 열리면 우리 폐하께서 직접 조선에 건너가 예를 올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일왕(천황)이 직접 조선에 오는 것은 물론 부여에 있는 신궁에서 제사를 올린다는 것이니 미나미 총독으로서도 놀랄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히로히토 일왕이 자연스레 조선에 오는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는 것을 일본 최고 통치자가 보여 주는 것이 된다. 특히 부여 신궁에는 저들의 시조라고



쇼와 천황(히로히토).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

쇼와 천황은 일본의 제124대 천황으로 본명은 히로히토이다. 1926년 다이쇼 천황에 뒤이어 천황 자리에 올랐다. 당시 아시아 유수의 강대국이던 일본에서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있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국주의의 팽창론이 세력을 크게 불러 1930년대 후반에는 결국 천황을 비호하고 정부를 장악한 군부가 중국과 인도차이나 등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식민지에 대한 탄압도 강화한다. 이후 일본제국은 미국과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쇼와 천황은 전범 기소와 황위 박탈은 면했으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군국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쇼와 천황 및 앞으로의 천황들에게서 정치적 실권은 빼앗기게 된다.

미나미 지로는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제7대 조선총독을 역임하였으며, 총독 재직 중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황국신민화 정책 일환으로 조선인에게 내선일체와 조선어 사용 금지, 창씨개명령을 시행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의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1940년 1월 창씨개명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에 맡긴다고 발표하였으나 창씨개명은 강제로 단행되었고, 창씨개명 정책에 대한 혼선과 조선인의 반발로 1942년 총독직에서 해임되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하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모두 ‘동조동근(同祖同根)’, 즉 ‘같은 조상’, ‘같은 뿌리’임을 강압적으로 내세워 황민사상을 심어 주겠다는 야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궁내성 대신은 또 이렇게 말했다. “부여에 세워질 신궁은 장차 중국과 만주에까지 황민사상을 보급시키는 기지 역할도 할것이고, 따라서 부여 도시계획을 잘 세워 최고의 도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조선은 물론 대륙에서도 참배객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게요” 미나미 총독은 이와 같은 중대한 사명을 띠고 조선에 부임했으며 그래서 부여도 방문한 것이다.

히로히토 일왕으로부터 직접 부여 신궁 건립을 지시 받은 미나미총독은 부여 현장답사를 마치고 극비리에 기초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하루는 부여 군수가 군정박물관 담당 홍사준씨를 불러 당장 책상을 군수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말단 직원이 군수와 함께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수의 명령이 지엄하여 군수실로 책상을 옮겼다. 그러더니 군수는 부여 읍내의 정확한 인구와 면적, 문화재와 유적, 형태별 가옥 수, 부소산의 자세한 산세와 백마강의 모든 것, 그리고 부여로 통하는 모든 교통수단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수는 이와 같

은 조사를 비밀리에 수행하도록 했다. 홍씨는 이와 같은 업무를 왜 그러는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 같은 동료 직원들은 홍씨가 군수실에서 마주앉아 근무하는 것에 대해 몹시 궁금해 했으나 말도 못하고 끄끖 앓고만 있었다.

그러는 한편 충남도청에서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역시 극비리에 부여 신궁 조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총독부는 부여군과 충남도가 작성한 계획서를 보고 받고 그해 6월 부여 현지에 내려와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본 궁내성 간부들이 부여에 건너와 확인 작업을 벌였는데 이들이 부여에 머무는 동안 총독부는 물론 충남지사 등이 총동원 되었다.

그렇게 궁내성의 위세가 높았지만 사업자체가 ‘제2의 東京’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변 평 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이제는 힘 모아 일어설 때”

유례 없는 충남 호우피해에
민·관·군 복구작업 구슬땀

청양군 정산면에 7월 13일부터 나흘간 내린 비의 양은 580mm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서울(남현) 462mm,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때 경기도 광주(지월) 534mm,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 393mm를 훌쩍 뛰어넘은 양이다. 피해가 집중된 청양, 부여, 공주, 논산 등에는 비가

그치자마자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군 병력,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가재도구를 씻어내고, 우사와 비닐하우스를 청소하며 피해민들의 시름을 달래줬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ha,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사진/충남도, 부여, 논산, 육군32사단, 도 소방본부, 도 인재개발원



2023.7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한여름밤의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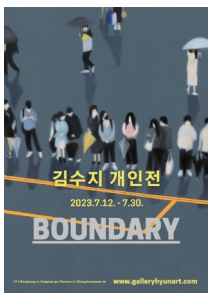
기간: 2023.07.27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아트홀
시간: 20:00
비용: 10000원
문의: 1533-8711



개인전

김수지 개인전

기간: 2023. 7. 12(수) ~ 7. 30(일)
시간: 11:30
장소: 충남 천안시 봉정로17-1
연령: 전체관람
관람료: 무료
문의: 041-576-4988



치유의 형태 | 공은지 개인전

기간: 2023.07.21 ~ 2023.07.30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2층 M갤러리
시간: 10:00
비용: 무료
문의: 1533-8711



윤민희 개인전

기간: 2023. 7. 1.(토) ~ 7. 31.(월)
시간: 10:00 ~ 18:00
장소: 카페아르떼
연령: 전체관람
관람료: 무료



기획·특별전

천안시 승격 60주년 특별기획전 <관계도시: 유동하는 미래>

기간: 2023-06-16 ~ 2023-08-27
시간: 10:00
장소: 천안시립미술관 전시실 전관
연령: 전 연령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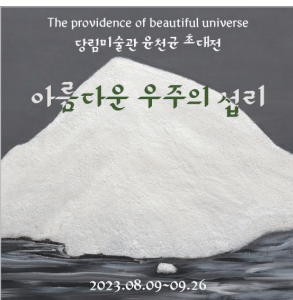


2023 충남역사박물관 정기특별전 충청의 문을 열다

기간: 2023.4.8 ~ 2023.8.31
장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야외무대 및 1층 기획전시실
시간: 14:00
문의: 041-856-8662



8월 전시



윤천균 작가 초대전 <아름다운 우주의 섭리>

기간: 2023.08.09 ~ 2023.09.26
장소: 당림미술관
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41-543-6969



민경욱·박신애 조각전

기간: 2023. 6. 1 ~ 2023. 7. 31
장소: 제1전시실
시간: 09:30
관람료: 무료
문의: 041-933-8100

창작스튜디오 교류 기획전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X 아용노의집 창작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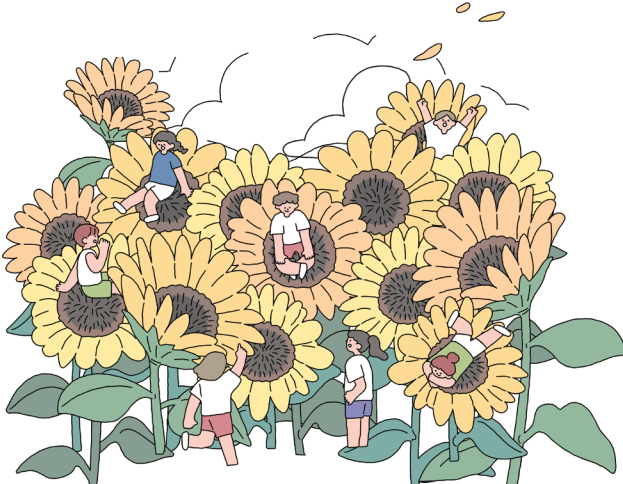


2023. 07. 20 - 08. 20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5기 입주작가
김재우 · 박정용 · 이재석 · 임선미
임수영 · 정주환 · 정철우 · 최수현
10기 입주작가
장철규 · 구 나 · 김세진 · 박지혜
서원호 · 우민형 · 임희재 · 최민아

2023 레지던스 기획 교류전<투엑스라지(XXL)>

기간: 2023.07.20 ~ 2023.08.20
장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시간: 10:00
비용: 무료
문의: 041-414-4464



신진청년예술인 갤러리 - 최수지 가야금병창 연주가



국립국악원 우면당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눈뜨는대목 연주 모습.

▲ 작품설명 - 2019 후생가와 우수연주자 특별공연

차세대 가야금병창 연주가 최수지는 한국의 전통 정서를 이어가면서도 깨어있는 젊은 명인을 꿈꾼다. 판소리와 가야금을 두루 아우르는 명인이 되기위한 과정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음악으로 전통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된 예술인이다.

▲ 앞으로의 활동

충청남도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최수지 가야금병창 독주회 <제 2회 수궁으로 간 토끼>
9-10월 충남 금산군 다락원 소공연장 공연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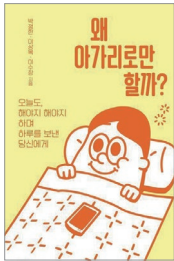
- 악력
 - 2015 목원대학교 국악과 졸업
 - 2021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졸업 (석사학위)
 - 2023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재학중 (박사학위)

- 수상내역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8호 가야금병창 전수자
 - 제 20회 대한민국 빛고를 기약대제전 일반부 가야금병창부문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 제 9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명창대회 일반부 가야금병창, 산조부문 최우수상
 - 제 15회 장흥전통가무와 전국제전 일반부 가야금병창 부문 최우수상
 - 제 20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 명인부 준우수상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그대에게



사서들의 서재



왜 아가리로만 할까?/박정한·이상목·이수창/들녘/2021

“이번 채용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하며 기다렸던 합격자 발표날 받은 문자 메시지. 애써 위로하는 듯한 몇 자 되지 않는 불합격 통보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친구가 사주는 위로의 술도, 기죽지 말란 부

모님의 마음도 이젠 너무나도 쓰고 아리다.

취업 빙하기의 시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인가’라며 괜히 사회를 비난해보지만, 결국엔 부족하고 게을렀던 지난날의 자신을 탓하는 걸로 귀결된다.

인간은 무릇 스스로에 대한 고찰과 방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이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되려 잘나가는 친구의 성공신화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괜히 뒤처지는 기분만 든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끌어안고 매일을 살다보면, 말로는 원대한 계획을 매번 품어도 ‘이번 생은 글렀어’라며 작심삼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저자는 불행을 핑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나’라는 아가리-즉, 매번 스스로를 정신승리하고 있는 독자를 채찍질한다.

청춘을 미화하지 마라.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다 보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알면 우리는 다시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불확실한 앞날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처럼 ‘실행’의 중요성을 우린 가끔 포기하면 살아갈 때가 많다. 서점에 떠도는 많은 위로와 힐링북들은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저자 또한 이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음을 첫 페이지부터 말한다. 부족한 의지를 습관으로 커버할 것. 이 책은 당신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채찍질이 되어 당신을 자극할 것이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유재열

국내 최고 천안 배 명성 지키려 판로 개척에 ‘온 힘’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농업회사법인 ㈜하나 김기태 대표

천안 배 수분 많고 당도 높아
배 생산·가공·유통 체계 갖춰
이마트 입점 소비자 상시 제공
천안 청년농업인과 공동 출하

“판로 개척하고 인지도 향상
자부심있는 농부 도약에 힘써”

“맛있는 배하면 ‘천안 배’할 수 있도록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서 배 주스 등 농산물 가공을 하는 청년 농부를 만났다.

농업회사법인 ㈜하나 김기태(34) 대표는 부모님과 배 밭을 일구며 재배·수확, 유통과 가공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

천안 성환 배는 지역 특산물로 100년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수분이 많고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

성환읍 일원 1만 평 규모 농장에서 배를 재배하고, 수확한 배는 공장에서 과육이 단단하고 우수한 과실을 선별하여 세척·포장작업을 거쳐 이마트 등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로 개척에 주력한 점이 눈에 띈다.

2019년 이마트 농산물 1차 벤더에 입점, 같은해 농심 메가마트에도 입점하며 상시 납품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배 유통을 하는데, 이들이 수확한 배는 김 대표의 공장으로 모여 전국으로 유통된다.

김 대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배 농사를 도우며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농업 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2018년 본격적으로 귀농을 하면서 판로 확보에 집중했다. PPT 발표



김기태 청년농부가 배 과수원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진

등 성환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힘쓴 결과 이마트 농산물 1차 벤더에 선정됐다. 덕분에 일년 물동량 계획을 갖고 움직이면서 매출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일년 내내 배를 제공하는 등 체계가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성환읍에서 배 농사를 짓는 형들과 함께 공동출하를 하고 있다. 베테랑농부는 물론 청년 농부 역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데, 형들이 저와 함께 유통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된 것 같아 좋다”라고 했다.

배 등 농산물을 갈아 원액으로 만든 착즙주스는 김 대표의 대표상품

이다.

김 대표는 “배, 양배추 등을 저온 방식 착즙주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2차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초기 더운 날씨로 제품이 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소비자들 착즙주스를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아이스박스 배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귀농은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사업화 지원을 받아 제품

을 출시하고 적절한 광고방법을 찾았다”며 “현재 천안시 4-H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4-H활동 역시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등 많은 도움이 된다. 귀농을 꿈꾸고 있다면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천안 배는 수분이 많고 당도도 높아 맛이 뛰어나다. 한번 맛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배를 구입할 때 ‘천안 배’ ‘성환 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당장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고 싶다”라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태안여고 학생들, 학교텃밭서 재배한 ‘채소’ 기부

4월 ‘봄꽃축제’ 행사 수익금
전액 태안읍에 전달하기도

태안여고 학생들이 학교 내 텃밭에서 직접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착한 냉장고에 전달했다. <사진>

태안여자고등학교(교장 김상엽) 학생들의 릴레이 나눔기부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 내 텃밭에서 직접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착한 냉장고에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부하며 나눔을 이고 있다.



태안여고의 텃밭 가꾸기는 충청남도 교육청, 태안군 4-H연합회의 지원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김상엽 교장 주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끈기와 협동심을 길러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급별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신문에 소개된 ‘태안

읍 착한냉장고’ 사업을 읽고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동기에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부에 동참한 이다경, 전소민 학생은 “직접 재배한 채소가 어려운 분들의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어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이 확산되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기부 문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태안여고 학생들은 지난 4월에도 교내 ‘봄꽃축제’ 행사에서 팝콘과 플리마켓 등 판매수익금 전액인 42만8천원을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

/주간태안신문

‘서천 음악영재’ 이현빈, 국제테너 트롬본 콩쿠르 우승

18세 이하 부문, 한국인 최초
대회 최연소 이름 올려

서천의 음악영재로 ‘정몽구 스칼라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현빈 학생(전주 예술고 2학년·사진)이 질베르토 갈리아르디 테너 트롬본 콩쿠르에서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및 테너 트롬본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트롬본협회에서 주최한 2023 ITA Solo and Ensemble competition

(솔로 앤드 앙상블 콩쿠르)는 지난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재능있는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총 14개 부문으로 나뉘어 콩쿠르가 진행됐다.

이현빈 학생은 테너 트롬본 부문 중 23세 이하와 18세 이하의 두 부문 결선에 진출한 결과 18세 이하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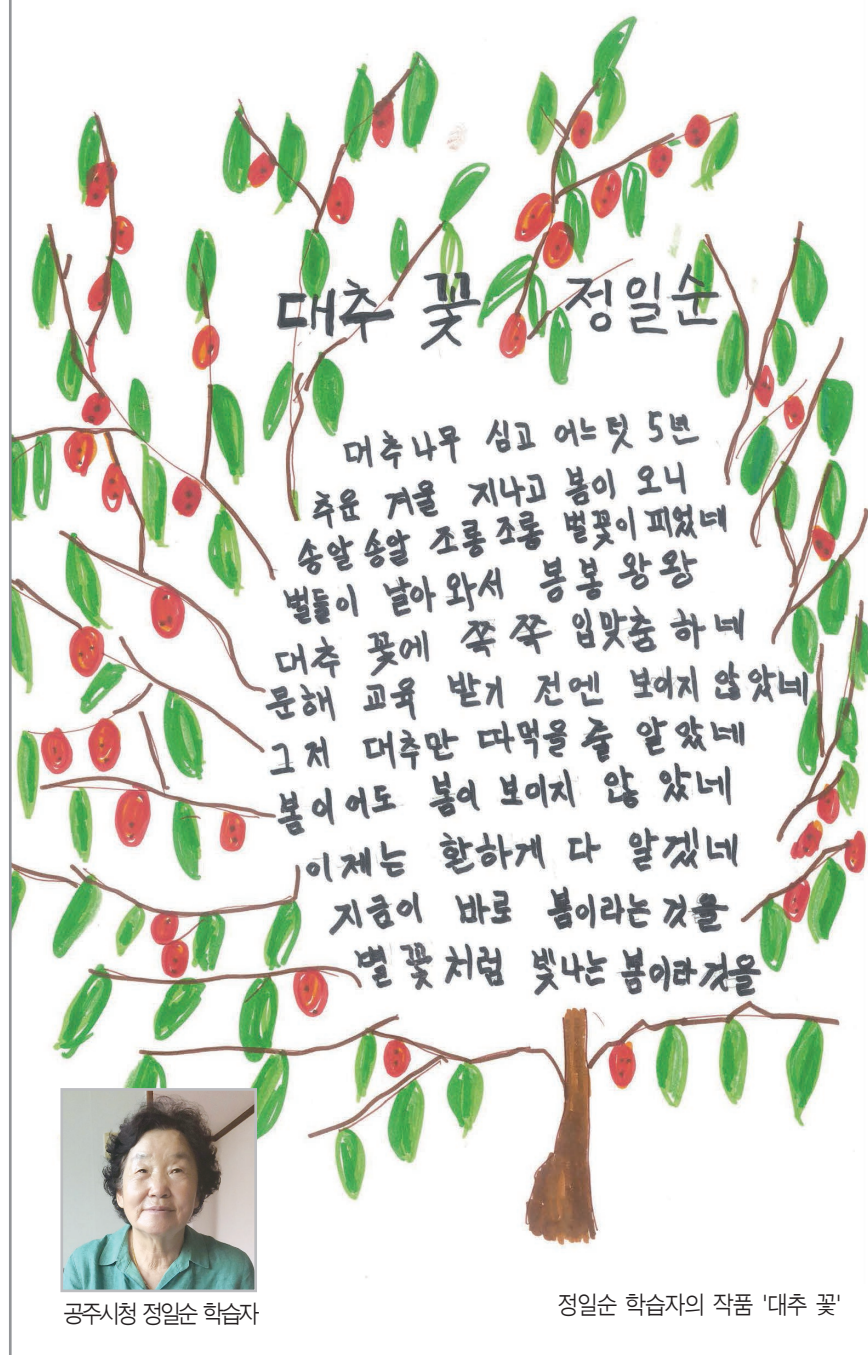
이현빈 학생은 “이번 대회를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도



깨달은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훌륭한 트롬본 연주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서천신문사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공주시청 정일순 학습자

정일순 학습자의 작품 '대추 꽃'

등골 휘는 사교육비, 누구 탓인가?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최근 킬러문화, 일타강사, 입시 카르텔 등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화자되고 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왜 문제가 되는지 대학입시 수험생이거나 수험생이 있는 집이 아니고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학원비’ ‘사교육’ 하면 우리 모두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진다.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주된 이유,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지옥,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 부모들을 투잡으로, 전업 주부를 망치는 현상으로 내모는 주범, 오늘 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근절 대책을 추진했지만,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더 진화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육혁명의 진원지라고 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세련되었다. 대학입시의 성공학생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나오고, 돈 잘 버는 스타강사도 학원에서 탄생한다. 학부모들은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강사가 있는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대상 의대진학을 위한 조기교육 학원이 생겨서 초등학생 학부모들 긴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자기 집 애는 어느 학원 보내?”가 맘카페나 길거리 학부모들의 일상적인 질문이

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공교육은 어디 갔고, 고등학교는 왜 있으며, 교육부는 뭐 하고 있는가?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인가? 못 할 것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입시학원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것인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룬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아닌가? 세계 최첨단의 기술로, K-Pop과 K-Contents로 세계를 재패한 문화강

“

망국병 사교육비 문제, 다같이 낭떠러지에
추락해 죽는 아프리카 들소때 같아
사교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주기 앞서
각자 스스로 결단해야할 문제

”

국 아닌가? 그러나 솔직히 속 시원한 대책은 어려울 것 같다. 현 정부에서도 개혁과제로 ‘교육개혁’을 천명하였지만 절대 쉬운 과제는 아닐 듯 싶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민 모두가 망국병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남녀 노소가 공감하는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데도 왜 해결이 어려운가? 필자의 해석은 ‘국민 개개인의 자식 욕심과 이기심’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자식만은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하고, 자식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 자식만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세워야 하겠기에 학교 간 아이를 불러내서 학원으로 달려간다. 옆에 아이가 가니 우리 아이도 가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도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간다. 마치 왜 달리는지 모

들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첫마디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세요”였다. 한국 청년들은 활기차고 끼가 많은데, 부모들이 청년들을 시키는대로 하라고 옥죄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부모님 말대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하여 공무원, 대기업, 의사, 관공사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미래의 디지털 시대는 지금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였다.

내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이기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이 학원보내기는 극장에서 ‘일어서서 영화보기’와 같다. 앞줄에서 한 사람이 영화를 잘 보기 위해 일어서면 뒤에 사람도 따라서 일어서는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모두 일어서야 한다. 앉아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모두가 일어서서 보는 형국이다. 결국 앞자리 한 사람이 애당초 일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여차피 아이들의 성공을 학원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사교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가 아닐까? 나만이라도 학원 안 보내면 큰 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치고, 나만이라도 안 보내면 모두가 안 보내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순환의 고리를 나부터, 우리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작은 물방울이 호수를 여울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양성평등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 정책방안



성인지 감수성 증진소

(38.6%), 서천군(39.8%), 청양군(38.5%)은 지역인구의 1/3이상이 노인인구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노인인구 비율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돌봄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노인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중남형 종합돌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노인돌봄 전문인력 중 노인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장기요양근무인력(2022. 08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요양보호사는 397,915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에서 남성 요양보호사는 5.3%(21,175명)인데 반하여 여성 요양보호사는 94.7%(376,740)를 차지하여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성 요양보호사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처우개선정책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19)를 실시하면서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분포는 남성 요양보호사가 약 5%(11,099명, 2017)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남성이용자(26.2%) 보다 여

성 이용자(73.8%)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는 이성노인 돌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매우 불편하다는 비율이 41.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는 노인돌봄 이용자의 성별분포와 비교할 때,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남성요양보호사는 3년이지만 현재에도 3년 전(5.0%)과 거의 비슷한 5.3%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성별균형에 맞게 남성요양보호사와 여성요양보호사의 비율이 3(남성) : 7(여성)정도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남성요양보호사 참여도려를 위한 캠페인, 요양보호사 수당 및 급여체계 조정, 도내 협력기관과 연계한 심리정서적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송미영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잉카야 올라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37)



소중애 동화작가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남미는 한 살이라도 어려웠을 때 다녀오세요.”

그만큼 어려운 코스였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 필요해서 짐은 무겁지, 버는 시도 때도 없이 내리지, 거기다가 5000미터까지 올라가는 고산으로 숨이 막히고 심장은 멎도록 나대지. 정말 어려운 곳이었다. 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이렇게 숨 쉬기가 어려운 때는 사탕이 아주 조금 도움이 되는데 숨이 차니깐 사탕을 핥으면서 걷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막대 사탕을 빨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옆에서 걷는 남자가 곧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인류애가 발동, 입에 있던 사탕을 빼 주었다.

극한 상황에서는 체면이 없다. 내가 먹던 사탕을 받아 입에 넣고 남자는 걸었다.

그런데 사탕을 돌려 주지 않는 것이었다.

‘나도 숨 차 죽겠는데.....그때 만든 명언. 내 입에 있는 사탕은 빼 주기 쉽지만 남의 입에 있는 사탕은 빼 달라기 어렵다.’

그 남자는 끝까지 사탕을 돌려 주지 않았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티티카카호수는 높이가 4000미터에 가깝다. 배를 타고 호수 속 섬에 있는 민가에 가는데 숨이 찼다. 반쯤 누워서 헐떡이는데 미국 청년은 편한 자세로 앉아 안주도 없이 조니워커를 마셨다. 그 모습에 주눅이 들었다.

올 3월에 볼로냐 세계 그림책 전시회에 갔다. 내 책이 4권 전시 되기도 했고 올하는 볼로냐를 거쳐 독일 메르헨 가도를 다녀올 생각였다. 그런데 독일로 출발하기 전 날 여권, 현금, 카드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도둑 맞았다. 수없이 해외 여행을 해왔던 나는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다. 여권이 없으니 당장 독일로 넘어갈 수도 없었다.

일행과 헤어져 혼자 밀라노에 가 하룻밤 자고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다.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 기차로 바뀔 타고 가 일행과 합류했다.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우리 일행 중 누군가 여권을 도둑맞아야했다면 소년생님이 맞아서 다행이네요. 혼자 잘 다녀오셨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남미 여행을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여권을 도둑 맞은 남자분에게 내가 똑 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법무사였던 그분도 하루 만에 여권을 발급 받아 우리와 합류를 했는데 그 때 내가 감탄하며 했던 말이었다. 참 세상 일이란.....



폭우 피해지역 조속 복구 등 지역현안 해결책 모색

제346회 임시회 49개 안건 처리
민선 8기 정책점검·조례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의의 건 등 총 4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기관·부서별 올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민청 설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 총 4건을 채택했으며, 채택된 건의·결의안은 관련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안건 심의에 앞서 15명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금강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방지 대책 마련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민규 의원(아산6)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청양·공주·부여·논산 등 도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재해 취약지구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다음 회기는 9월 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7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조길연 의장, 집중호우 수해현장 점검

공주·청양·부여 피해현장 방문
이재민 위로 및 복구대책 점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7월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사진>

조길연 의장은 7월 16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청양군 제방 유실 현장과 부여군 농경지 침수 현장, 공주시 옥룡동 등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7월 21일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공주시 옥룡동 침수 현장과 청양·부여군 농경지 복구현장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확



인했다.

충남 중·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이번 폭우로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3

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3일부터 15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부여가 462mm로 최고이며, 청양이 454mm, 계룡 434mm, 보령 432mm 등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대책에 집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구호 활동과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다움아트홀 ‘송촌 김호숙 전’ 개최
8월 11일까지 문인화 32점 선보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송촌 김호숙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김호숙 작가의 열한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아트홀의 여섯 번째 전시다. ‘일상의 묵색’을 주제로 매·난·국·죽 사군자 작품 등 3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며 “더운 여름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김도훈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탄소중립경제로 충남경제의 미래 준비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RE100’과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저탄소제품 생산기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 법인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벼 대체작물 지원해 농가소득 이바지



김민수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벼를 대체해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과잉 문제의 선제 대응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등으로 규정했다.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김석곤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평생교육이용권 전달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감시단 설치



김응규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박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능동적·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광역 단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원·강화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한우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 나서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 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충남한우 혈통관리 노력 ▲한우 생산기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 등 충남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통한 품질 강화



오인철 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에,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입법목적에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했다. 또 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협의 전제 등을 명시했다.

수목유전자원 보존·자원화 촉진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4년 충남 도내에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정원 개장에 맞춰 준비됐다. 특히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시간 ▲휴원 관련 규정 ▲이용료 및 감면 ▲이용료의 반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대규모 사업 철저한 점검·관리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충남연구원 업무 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AI융합 특화산업 지원과 관련해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분되어 점검·평가·관리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쓰인 사업을 평가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각종 공모 절차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 발전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 완화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의 디자인센터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계룡)은 “군 문화 이외에 계룡 시민이 지닌 특징점을 활용한 계룡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했다.

이어 진행된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에서 안중혁 위원(천안3)은 “교원 연수 온라인 콘텐츠 자막 및 수어 통역과 관련, 교육자들의 반응을 본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업무 보고에서 이지윤 의원은 아산탕정지구 2-A10BL과 관련 “공사의 첫 공공분양 주택 사업인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포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7월 21일 내포신도시 일원의 현장점검을 진행,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내포특위는 먼저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해 보훈회관 전망대에서 총괄 보고를 받았다. 또 내포신도시를 일주하며 주요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청취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 투명성 확보 촉구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심사 중 오인한 위원(논산2)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유사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사건이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138건 발생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장현 위원(아산5)은 “도민과 공직자와의 사이에서도 갑질이 존재한다”며 “지위가 높은 민원인과 그렇지 않은 민원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도 “같은 민원임에도 시·군, 담당자에 따라 처리 기간과 내용이 상이하다”고 비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감사관리단이 운영되어 공동주택의 부조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도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도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도민 피해 없도록”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월 13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돌봄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서울, 인천,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시·군과 연계해 운영하는 충남형 광역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 4개 의료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고접수가 처리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충청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 “오히려 공정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 시·군 연계사업 수요 및 역할에 대한 점검을 선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업무가 민간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보건의료노조파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어민 피해 최소화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7월 13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농수해위 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물국과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체계적 연안정비,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서 해사 채취 보고가 없다. 비록 소관 부서는 아니나 유관 업무인 만큼 기후환경국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민수 의원은 “충남형 해양치유 랜드마크 구축과 관련한 ‘해양치유센터’ 연구용역이 전문영역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며 “또 귀어학교 운영을 통한 어촌 인구 유입정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정착률이 20%로 매우 저조하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말고 정착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는 해수국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가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산물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캠페인, 홍보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충남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수산연구소는 충남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수산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캠페인을 다양한 매체에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하천 생태연구의 경우 주요 갯벌·하천의 수산자원 변화 모니터링과 기초자료 구축, 지속적인 수산자원 및 생태계 환경을 분석해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 행정력 집중 강조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제34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부여1) 위원장은 “업무보고 시 세부 자료 제공으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달라”며 “집중호우로 도민 안전에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인력투입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천안2)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 실적이 2023년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인용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2023년 전자 예금입금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시행 추진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에 충실해 달라”고 밝혔다.

조철기(아산4)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축대

붕괴, 산사태 위험지역, 지반 침하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도로 파임(포트홀) 현상 등 도로관리엔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서산2) 의원은 “‘찾아가는 보상 협의’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 하고, 민원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보상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당진3) 의원은 “공공건축물 설계 시 이용자의 편의성, 실용성, 관리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고광철(공주1)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예방을 철저히 하고, 설계 시부터 안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완식(당진2) 의원은 “당진 619호선 지방도공사 사업 조기 착공과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위한 포트홀 저감 대책(순찰 강화)으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관 특성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 높이길”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순옥 의원은 상반기 당부했던 사항들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속 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필요시 손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교류 및 협력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국제교육원 업무 추진이 차질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시행에 앞서 직속기관 에도 해당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직속기관마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장 변경 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사업 추진 시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도내 13개 직속기관은 각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면 배제하는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꼬집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생존수영 교육, 각종 캠프 운영, 문화공연 체험 등 모든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2023 Great Baekje Festival

대백제전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2023. 9. 23.(토) - 10. 9.(월)

개막식 공주 | 폐막식 부여

